

## 한국 노인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인식

유흥준·정태인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인들의 범죄피해 추세를 확인하고, 노인층의 범죄피해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공식 통계자료의 2차분석 및 전국적인 설문조사(survey)를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약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도농별, 성별에 따른 할당이 이루어진 다음에, 각 지역별 구체적인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과 표집은 다단계층화표집(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자료의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빈도분석(frequency) 및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노인 범죄피해자는 1996-2006년 기간 중에 연평균 4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범죄피해자 연평균 증가율(4.7%)보다 10배가 넘는 수치이다. 서베이(survey)의 표본이 되어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3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피해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8가지 노인문제 중에서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나서 중간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범죄피해의 두려움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세 가지 독립변수군(사회인구학적 변인, 일상생활 활동 변인, 범죄피해 인식 변인) 중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군은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 관련 변수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변수 외에 범죄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 결혼상태, 외출시간대 등이다.

■ 주제어: 노인, 범죄피해 인식, 설문조사, 공식통계, 범죄피해 두려움, 일상생활 활동 변인, 범죄피해 인식 변인

---

### I. 문제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층의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현재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과 점증하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다.<sup>1)</sup>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번영과 안정성을 반영하는 지

표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노인 연령층의 증가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근래 노인층의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다양한 종류의 범죄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책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노인관련 범죄 연구는 주로 노인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노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있으며 그러한 사회환경적 요인 중의 하나가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더 민감할 것이고 그 결과로 생활이 더 제약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노인 범죄 관련 기초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범죄 현황과 대응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연구라고 할 수 있는 『범죄백서』를 보더라도, 그 내용에서 ‘여성범죄’나 ‘청소년범죄’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노인범죄’에 대한 별도의 분석 항목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 II. 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이론

### 1. 생활양식 노출 이론(Life-style Exposure Approach)

힌더랭 등(Hindelang, Gottfredson and Garofalo, 1978)에 의해 소개된 이 이론의 주요 개념은 ‘생활양식(life style)’이다. 생활양식은 개인의 특성이나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피해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생활양식과 범죄피해에 대한 7가지 명제를 제시하였는데, 노인의 범죄피해율은 젊은 남성에 비해 훨씬 낮게

1)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초과한 사회이며, ‘고령사회’는 해당 인구가 총인구의 14%를 초과한 사회이고,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한 사회이다. 한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2018년에 14.3%가 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타나며, 노인은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 2. 일상생활론(Routine Activity Approach)

생활양식 노출 이론을 보다 발전시킨 일상생활론은 범죄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발표한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 1979: 593)은 가정에서 떨어진 일상생활이나 혹은 가정에서 떨어진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 범죄의 기회가 증가하고 피해를 입을 확률도 높아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이론은 범죄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범죄피해의 설명변인인 ① 동기화된 범죄자와의 근접성 ② 범죄대상이 될 수 있는 적당한 목표의 존재 ③ 보안장치나 감시인의 결여가 적절하게 수렴할 때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이건중·전영실(1995)은 생활양식 노출 이론과 일상생활론의 관점에서 노인의 범죄피해를 연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절도나 강도 피해는 집 근처나 대중교통 수단, 길거리 등에서 더 많이 당하고 있으며, 폭행의 피해는 타인의 집, 유흥업소 및 길거리가 대부분이어서 생활양식이 노인의 범죄피해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한편 허경미(2004)는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을 분석하여,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특성상 사기 등의 재산피해 및 상해나 폭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범죄 대상의 매력성과 근접성 및 보호장치의 부재 등의 요인이 갖춰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경미(2006)의 또 다른 연구인 “도시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에서는 도시노인의 범죄피해 현황 분석을 위해 대구지역에서 2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재산피해와 폭력피해별로 범죄피해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상생활론에 근거하여 범죄 피해의 원인을 탐색한 이 연구에서 허경미(2006: 294)는 범죄자와의 근접성, 지역보호성, 범죄대상자의 매력성의 3가지 차원으로 요인을 구분하고 노인의 범죄피해 원인을 분석하였다. 재산범죄 피해에는 범죄자와의 근접성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범죄 피해에서도 주로 근접성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범죄대상자의 매력성도 부분적으로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 예방대책으로 범죄자와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환경적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3. 구조적 선택이론(Structural-choice Theory)

마이더와 마이어(Miethe and Meier, 1994)는 기회이론을 확대하여 구조적 선택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들이 제시하는 두 명제는 ① 일상생활은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접촉을 강화함으로써 기회구조를 창출한다는 것과 ② 범죄피해 대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보호장치와 감시인의 수준에 따라 최종 범죄 피해 대상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어떤 범죄대상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 행위에 대한 보상과 위험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며, 이런 요인들을 ‘구조적 요인’이라고 불렀다.

### 4. 피해자-가해자 상호작용론 (Victim-offender Interaction Approach)

앞에서 살펴 본 범죄피해 이론들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혹은 피해자와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론들이라면, 피해자-가해자 상호작용론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범죄피해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노인의 범죄피해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본 연구와 관심은 공유하고 있지만, 조사연구의 경우에 표본 수가 매우 작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표본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표집의 대표성과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최근 범죄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는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사회조사(survey)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Ⅲ. 연구방법

#### 1. 문헌 연구 및 공식 통계자료의 2차 분석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고, 노인들의 범죄 피해 추세를 기본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및 통계청 등이 제시하는 거시 통계자료의 2차 분석을 하였다.<sup>2)</sup>

#### 2. 설문조사(survey)

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인연령층에 대한 설문조사(survey)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들이 갖고 있는 설문조사상의 문제점<sup>3)</sup>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표집된 노인 인구 약 1,0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노인인구에 대한 대표성 있는 확률표집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sup>4)</sup>, 지역별 비례할당 및 다단계 층화 집락표집을 통해 최대한 대표성을 확보한 표본조사가 되도록 하였는데, 구체적인 표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 모집단 확정 및 지역별 비례할당 표집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노인’을 정하는 연령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며 경제지표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2) 이러한 거시 추세적 실태분석을 위해서는 『범죄분석』, 『사법연감』, 『검찰연감』, 『범죄백서』, 『한국의 사회지표』 및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등에 제시된 공식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재구성하였다.

3) 표집수가 1개 도시(대구)에서 200명 정도로 너무 적다든가(허경미, 2006), 1개 도시(서울)의 6개 구에서만 600명 정도의 표집이 이루어진(이건중·전영실, 1995) 문제는 표본의 대표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전국 노인인구의 전체 리스트를 확보하여 무작위확률표집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 극고령층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노인범죄나 범죄 피해를 다루는 본 조사연구의 목적상 연구대상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고령층의 경우에 학력수준이나 시청각 장애로 인한 면접설문 이해도가 극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 등이 있다.

서 범죄 및 범죄피해와 관련된 공식통계에서는 지금까지 노인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여 통계가 작성되고 있으며 기존의 노인범죄 관련 연구에서도 이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노인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하였다.

약 1,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규모의 사회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표집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별/도농(都農)별 노인인구의 남녀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표집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2005년 <인구총조사>에 따른 60세 이상 인구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인구는 2005년 현재 약 625만 명인데, 전국 기준으로 이중에 남성이 263만 명으로 42%이고 여성이 362만 명으로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집 대상자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42:58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시도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인구 중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 3% 높고, 반대로 경상남도 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3-4%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 표집을 할 때 이러한 비율에 유의하였다. 행정구역별로도 비례표집을 위해 그 구성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60세 이상 인구가 각 100만 명을 넘어서서 전국 60세 이상 인구의 17.8%와 17.4%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84,000명으로 전국구성비가 1.4%로 가장 낮으며, 도(道) 중에서는 제주도가 77,000명으로 전국구성비가 1.2%로 가장 낮다.

행정구역 중에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는 모두 구(區)와 동(洞)을 하위 행정단위로 하는 도시 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경기도 등의 행정구역은 시(市)부와 군(郡)부를 동시에 하위 행정단위로 포함하고 있어서, 도시와 농촌 지역을 함께 포괄하고 있는 상태이다.<sup>5)</sup> 따라서 도(道) 지역의 표집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비례표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60세 이상 전체 인구의 도농분포를 확인한 결과,

5)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상 군(郡) 지역이라고 하여 모두 농촌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읍(邑) 지역의 경우에는 농업 종사인구 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주거형태도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아지는 등 도시지역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구분 단위를 기초로 도농을 구분하였고, 도농 표집수의 비례할당을 하는데 있어서도, 동(洞)부를 도시인구로 읍(邑)부와 면(面)부를 농촌인구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한다.

동(洞)부의 인구가 약 412만 명으로 66%에 해당하며, 읍부와 면부의 인구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1,000명의 표본 수에서 도시지역이 66%, 농촌지역이 34%의 비율이 되도록 지역별 비례할당을 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 표와 같은 지역별 표본 수의 할당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조사결과 총 1,003명이 응답자가 되었다.

〈표 1〉 전국 지역별 표집 결과

행정구역별	전체	남성	여성	도시-남	도시-여	농촌-남	농촌-여
	표집수/ 할당수	표집수/ 할당수	표집수/ 할당수	표집수/ 할당수	표집수/ 할당수	표집수/ 할당수	표집수/ 할당수
전국(합계)	1,003 /1,000	425/420	578/580	285/282	376/366	140/145	202/199
서울특별시	180/178	74/79	106/99				
부산광역시	73/74	32/32	41/42				
대구광역시	47/47	20/20	27/27				
인천광역시	42/42	16/18	26/24				
광주광역시	24/24	9/10	15/14				
대전광역시	26/24	11/10	15/14				
울산광역시	14/14	6/6	8/8				
경기도	169/173	72/75	97/98	36/32	38/42	36/43	59/56
강원도	41/42	19/18	22/24	10/8	8/10	9/10	14/14
충청북도	41/38	20/17	21/21	11/7	8/9	9/10	13/12
충청남도	57/57	26/24	31/33	11/10	13/14	15/14	18/19
전라북도	54/54	22/24	32/30	11/11	12/12	11/13	20/18
전라남도	81/68	39/28	42/40	13/11	18/18	26/17	24/22
경상북도	84/80	33/33	51/47	13/13	22/20	20/19	29/27
경상남도	70/73	26/28	44/45	12/12	19/19	14/16	25/26
제주도	0/12	0/5	0/7	0/2	0/3	0/3	0/4

2) 조사대상 지역 선정에 위한 다단계층화 표집

시도별 도시-농촌과 남성-여성의 비례에 따른 표본 수의 할당이 이루어진 다음에 각 지역별 구체적인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과 표집은 다단계층화표집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전국 인구비례에 따라 178명이 표집수로 정

해졌으며 이중 남성이 79명, 여성이 99명이 표본이 되도록 정하였다. 우선 25개 구 중에서 5개 구(종로, 강북, 영등포, 동작, 강남)를 무작위 표집방식으로 선정하였고, 각 구의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구별 남녀 표집수가 확정되었다(최소 27명~최대 49명). 각 구(區)가 선정된 다음에 동(洞)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동의 규모를 고려한 구별 사정에 따라 1개 혹은 2개의 동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표본 선정을 위한 기본단위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광역시에서는 3개 구가 선정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표집 수가 적은 광주광역시(북구), 대전광역시(동구), 울산광역시(남구) 등에서는 1개 구만 선정하였고 각 구에서 1개 동이 표집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도시와 농촌 행정단위가 공존하는 도의 경우에는 우선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여 시와 군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인구비율 규모를 고려하여 3개 시와 3개 군을 표집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시 중에서는 시흥시, 의정부시, 남양주시가 무작위 표집을 통해 선정되었고, 군 중에서는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이 선정되었다. 각 시와 군에서는 각 1개 씩의 동 및 읍면이 표본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이외의 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1개의 시와 1개의 군을 무작위 표집하였는데, 강원도에서는 춘천시와 홍천군,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와 단양군,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와 홍성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 및 무주군<sup>6)</sup>, 전라남도에서는 여수시와 곡성군,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와 예천군,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시와 창녕군이 표본대상 지역이었다. 제주도는 인구비율에 따라 12명의 표집 수가 할당되었는데, 경비 대비 조사의 효율성 문제 등 여러 사정상 실제 표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다른 지역에서 할당 수를 약간 초과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여서 전체 표집 수는 애초의 표집 목표를 약간 넘는 1,003명이다.

### 3) 지역내 응답대상자 선정을 위한 임의 표집

일단 표본 대상 지역(동, 읍, 면)이 확정된 후에 각 지역에서 실제 면접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할당 표본 수에 해당하는 표본의 선정은 임의표집으로

6) 전라북도의 경우에 애초 표본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완주군에서 여성 응답자 표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어서 무주군이 표본대상 지역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루어졌다.

완벽한 표본 대표성을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도 확률표집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만, 실제 지역 거주 노인층의 전체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남녀 표본 수의 할당을 맞추는 필요가 있었고, 초고령자 및 심신쇠약으로 거동불능자 등 본 조사의 취지에 별로 해당이 없는 노인층을 배제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조사원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표본을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거나, 지역 노인정을 방문하거나,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여 특정 수업의 수강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4) 사전조사 및 본조사 실시

노인의 범죄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이 설문조사의 사전조사(Pre-test)는 2008년 3월 중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등포구 및 경기도 남양주시 등 3곳에서 성균관대 사회학과의 훈련된 대학원생을 조사원으로 하여 약 3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질문의 표현방식 수정 및 응답지의 보완을 거쳐서 본 조사는 4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면접 설문조사는 1인당 평균 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극소수 고학력 노인들의 경우에는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였고 약 20분 이내에 완료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많은 노인들이 비록 문맹은 아니더라도(7) 질문과 조사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길게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사를 통해 회수된 설문지는 에디팅(editing) 및 코딩(coding) 작업을 거쳐 7월 초에 자료입력이 완료되었다.

### 3. 변수의 구성

#### 1) 종속변수: 범죄피해 두려움

7) 우리나라의 현재 공식적인 문맹률은 1% 정도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척도(scale)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2가지 항목(밤에 집에 있을 때의 안전성 정도에 대한 인식, 동네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의 안전성 정도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으로 인한 회피행동 3가지 항목(특정 장소를 일부러 피해서 다닌 정도, 무서워서 누군가와 동행을 한 정도, 무서워서 외출을 미룬 정도)를 합하여 평균값을 낸 것으로 측정하였으며<sup>8)</sup>, 점수가 높을수록 두려움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 2) 독립변수군(群)

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고려한 변수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일상생활 활동 특성 변인,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 관련 변인들로 나눌 수 있다. 각 변인 군에 속한 개별 변수들과 해당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성별: 남성과 여성

연령: 만 나이

교육정도: 무학, 초졸(퇴), 중졸(퇴), 고졸(퇴), 대졸(퇴)이상

생활비 충당방법: 본인이나 배우자 능력, 자식들이 주는 돈, 친척이 주는 돈, 정부보조금

직업유무: 현재 직업 유무

결혼상태: 미혼, 기혼, 동거, 사별·이혼·별거

가족 거주형태: 혼자, 배우자와 둘이, 가족들과, 시설에서 생활

사는 지역: 일반주택단지·빌라, 아파트단지, 상가·유흥지역, 양로원 등 시설

개인의 월평균 수입

가족의 월평균 수입

### [일상생활 활동 특성 변인]

외출빈도: 거의 매일, 1주일에 1-2번, 보름에 2-3번, 1달에 2-3번

외출시간대: 아침시간, 낮시간, 저녁시간, 늦은 밤

8) 척도 평균값의 최저값은 1점이고 최고값은 5점이다.

외출시 교통수단: 걸어 다님, 전철·지하철, 버스, 택시, 승용차

[범죄피해 인식과 경험 관련 변인]

범죄발생추세 인식(전국): 크게 감소 ~ 크게 증가 간의 4점 척도

범죄발생추세 인식(동네): 크게 감소 ~ 크게 증가 간의 4점 척도

노인대상 범죄발생추세 인식: 크게 감소 ~ 크게 증가 간의 4점 척도

젊은층 대비 노인의 범죄피해 인식: 더 적다-마찬가지이다-더 많다 간의 3점 척도

경찰의 순찰활동 인식(동네): 아주 잘하고 있다 ~ 아주 못하고 있다 간의 5점 척도

자신의 범죄피해 경험 유무: 지난 1년간 범죄피해 유무

가족·친지의 범죄피해 경험 유무: 가족 친지 중에 지난 1년간 범죄피해 유무

## IV. 연구 결과 분석

### 1. 공식통계로 살펴본 노인의 범죄피해 추세

먼저 공식통계를 통해 살펴본 노인의 범죄피해 추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6~2005년 기간 동안 노인 피해자는 1996년의 33,431명에서 2006년에 87,53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4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피해자 증가율 평균(4.7%)보다 10배가 넘는 수치이다. 노인의 범죄피해에서 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 범죄피해자 중에서 여성은 32.6%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노인 피해자의 연평균증가율은 53.1%로서 전체 범죄피해자 증가율(4.7%)이나 노인피해자 증가율(48.7%)보다도 높다.

공식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상의 범죄와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는 2005년에 1996년 대비 건수에서 약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구성비도 15%p 증가하였다. 동기간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도 3배 이상의 증가추세이다.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의 형법범 피해 전체 노인(268,401명)은 우리나라

전체 형법범죄 피해자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형법범 피해노인의 31.5%는 사기피해를 입었고,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범죄피해는 폭행 피해이다. 이는 전체 형법범 노인피해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6년 대비 증가율 평균은 94.9%로 나타났다. 강간,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는 노인의 형법범 피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으나(강간 0.4%, 살인 0.3%, 방화 0.4%), 큰 사회문제이다. 강간과 방화의 증가율 평균은 각각 126.3%와 16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 범죄 피해 위험에 대한 인식

미국에서는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나 이에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특성들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노인들에게는 실제 피해나 지역사회의 범죄율보다도 더 크게 노인의 사기(morale)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노인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이진중·전영실, 1995: 137).

### 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

노인들이 평소에 자신들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에게 8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한 노인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건강문제로서 평균이 2.49점이었으며, 다음은 금전적인 문제가 2.26점, 고독과 소외감이 2.15점, 취업문제가 1.98점이었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1.90점으로 5번째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관계의 문제나 성(섹스)·이성교제 문제, 앞으로 누구와 살아야 할지의 주거문제 등에 대한 심각성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인식하는 심각한 문제들 중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문제들 중 중간 정도

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문제 항목별 심각성 인식 평균값

항 목	평 균 <sup>9)</sup>	유효수
건강문제	2.49	979
성(섹스) 및 이성교제 문제	1.77	935
금전적인 문제	2.26	953
취업문제	1.98	918
고독, 소외감	2.15	944
자녀 등 가족관계 문제	1.83	946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1.90	952
주거문제(누구와 살지)	1.73	919

## 2) 젊은 사람과 비교한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젊은 사람과 비교하여 노인들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표 3>과 같이 ‘마찬가지’라는 응답이 31.5%이지만 ‘더 적다’는 응답이 42.1%인데 반해 ‘더 많다’는 응답은 26.4%로 나타나서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범죄피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젊은 사람과 비교하여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빈도 (%)
나이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 비하여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다	409 (42.1)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306 (31.5)
나이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 비하여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256 (26.4)
계	971 (100)

9) 여기서의 평균은 각 항목별로 ‘전혀 심각하지 않다’에 1점, ‘별로 심각하지 않다’에 2점, ‘조금 심각하다’에 3점, ‘매우 심각하다’에 4점을 주어 평균을 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 3) 노인 대상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

최근 몇 년 사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발생 추세는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본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증가한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2.5%로 가장 많고, ‘감소한 편’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37.9%로 두 번째 순이다. 그런데 증가추세로 답한 응답을 합한 비율은 47.1%이고 감소추세로 생각하는 비율은 합쳐서 45.0%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반분되는 양상이다.

〈표 4〉 노인 대상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빈도 (%)
크게 감소하였다	71 (7.1)
감소한 편이다	380 (37.9)
증가한 편이다	426 (42.5)
크게 증가하였다	46 (4.6)
무응답	80 (8.0)
계	1,003 (100.0)

## 4) 밤에 집에 있을 때의 안전성 정도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문항 중의 하나로서 밤에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표 5> 참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7.9%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8.2%의 순서이다. 이 두 응답을 합하면 86.1%로서 응답 노인들은 밤에 집에 있을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못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3.3%로 매우 적다.

〈표 5〉 밤에 집에 있을 때의 안전성 정도에 대한 인식

	빈도 (%)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283 (28.2)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581 (57.9)
별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118 (11.8)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15 (1.5)
무응답	6 (0.6)
계	1,003 (100.0)

## 5) 동네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의 안전성 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들이 동네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6>와 같이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별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4.6%,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4.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쪽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약 70%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인 28.1%에 비해서는 훨씬 높지만, 불안하게 느끼는 노인들의 비율이 앞에서 살펴 본 밤에 집에 있을 경우와 비교해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동네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의 안전성 정도에 대한 인식

	빈도 (%)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147 (14.7)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553 (55.1)
별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247 (24.6)
전혀 안전하지 않게 느낀다	35 (3.5)
무응답	21 (2.1)
계	1,003 (100.0)

## 3. 범죄 유형별 피해가능성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들에게 범죄유형별로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비율(‘조금 있다’와 ‘매우 많다’를 합한 비율)은 소매치기 등 절도

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기를 당할 가능성 13.0%, 강도를 당할 가능성 7.4%, 학대를 당할 가능성 6.6%, 신체적 폭행을 당할 가능성 5.5%, 살인을 당할 가능성 3.1%의 순서였다.<sup>10)</sup>

〈표 7〉 범죄 유형별 피해를 당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조금 있다	매우 많다	무응답	계
유기 및 학대	701(69.6)	220(21.9)	61(6.1)	5(0.5)	16(1.6)	1,003(100)
소매치기 등 절도	611(60.9)	236(23.5)	127(12.7)	7(0.7)	22(2.2)	1,003(100)
신체적인 폭행	694(69.2)	223(22.2)	47(4.7)	8(0.8)	31(3.1)	1,003(100)
강도	687(68.5)	210(20.9)	66(6.6)	8(0.8)	32(3.2)	1,003(100)
사기	639(63.7)	209(20.8)	120(12.0)	10(1.0)	25(2.5)	1,003(100)
살인	759(75.9)	184(18.3)	26(2.6)	5(0.5)	29(2.9)	1,003(100)

#### 4.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응답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일상생활활동 특성 외의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독립변수군(群)으로 하여 어떤 요인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는 변수인지를 다변량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결정계수 값( $R^2$ )은 0.223이며, 0.1%의 통계적 유의미 수준( $p < .001$ )을 나타내서, 위의 독립변수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변량의 22%를 설명해 주고 있다.

10) 응답자들이 유기나 학대에 비해 절도나 사기, 강도 등을 당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응답한 경향은 1995년의 조사와 일관된 결과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건중·전영실], 1995: 145).



〈표 8〉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범죄에 대한 두려움			
	b	SE(표준오차)	B	p
상수	.831	.412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237	.049	.217	***
연령	-.008	.027	-.013	
교육정도	.019	.022	.042	
생활비 총당방법	.055	.048	.050	
직업유무	.006	.051	.005	
결혼상태	.183	.071	.154	**
가족 거주형태	-.120	.077	-.087	
사는 지역	-.250	.140	-.066	
개인의 월평균 수입	.006	.015	.021	
가족의 월평균 수입	-.020	.022	-.044	
[일상활동 특성]				
외출빈도	.005	.022	.009	
외출시간대	-.098	.039	-.100	**
외출시 교통수단	.011	.032	.013	
[범죄피해 인식과 경험]				
범죄발생추세 인식(전국)	.082	.029	.114	**
범죄발생추세 인식(동네)	.161	.035	.198	***
노인대상 범죄발생추세 인식	.120	.036	.150	***
젊은층 대비 노인의 범죄피해 인식	.060	.027	.086	*
경찰의 순찰활동 인식(동네)	-.096	.023	-.166	***
자신의 범죄피해 경험 유무	.069	.065	.039	
가족·친지의 범죄피해 경험 유무	.337	.091	.139	***
$R^2$				.223

\* $p < .05$  \*\* $p < .01$  \*\*\* $p < .001$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성(性)과 결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고,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 비해서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집단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은 노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핵가족화 경향 속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질 것이라고 볼 때, 주로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두려움 예방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상생활 활동 변수 중에서는 외출 시간대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외출 빈도나 외출 시의 교통수단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이 없다.

세 가지 독립변수군 중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군은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 관련 변수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추세가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노인들, 최근 몇 년 사이에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발생 추세가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노인들, 최근 몇 년 사이에 노인대상 범죄발생 추세가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노인들, 젊은 사람에 비해 노인들이 범죄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노인들, 살고 있는 동네에서 경찰이 순찰활동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일수록 범죄피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1년 동안에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범죄피해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지난 1년간 자신의 범죄피해 경험이 범죄피해 두려움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인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변수들(특히 범죄피해 인식 관련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이 변수들과의 공변량성에 기인한 결과일수도 있고, 범죄피해 경험을 한 응답노인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9.2%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량(variance)이 작은데서 기인하는 결과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sup>11)</sup>.

## V. 맺음말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노인의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11) 199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건중, 전영실]의 조사와 비교해 보면, 두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의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1995년에는 가구소득과 자신의 범죄피해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점이 본 연구결과와의 차이이다.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범죄피해 관련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있거나 직업이 있거나 대인접촉이 활발한 노인일수록 범죄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노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볼 때, 또 피해이론에 의해서 볼 때에도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범죄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SAFE Project (Seniors Against a Fearful Environment)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들에 대하여 경찰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이건중·전영실, 1995).

노인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노인복지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노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안에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이웃감시활동 등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경찰청. 「경찰백서」. 1995-2007.
- 구자숙. (2003). 노인의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태현. (2007). 「노인학」. 교문사.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7.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6-2007.
- 이건중·전영실. (1995).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유홍준·정태인·이완수·노용준. (2008).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형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태인 외. (2008). 「사회문제」. 그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경희 외). (1998).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히경미. (2004).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423-452.
- \_\_\_\_\_. (2006). 도시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4(2): 271-300.
- Akers, R. L., J. La Greca and C. Sellers. (1988). "Theoretical Perspectives on Deviant Behavior among the Elderly," in McCarthy B. & R. Langworthy (ed.), *Older Offenders: Perspective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New York: Praeger.
- Alston, L. (1986). *Crime and Older Americans*. Illinois,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s.
- Brogden M. and P. Nijhar. (2000). *Crime, Abuse and the Elderly*. Portland: Willan Publishing.
- Cohen L. E. and M.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Feinberg, C. (1984). "Profile of the Elderly Shoplifter," in Newman E., D. Newman and M. Grewitz (ed.), *Elderly Criminals*. New York: Oelgeschlager Press.
- Greenberg, J.R., M. McKibben and J.A. Raymond. (1990). "Dependent Adult Children and Elder Abuse,"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2(1/2): 73-86.
- Hindelang, M. S., M. Gottfredson and J. Garofalo.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Cambridge.
- Janson, P. and L. K. Ryder. (1983). "Crime and Elderly: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and Fear," *The Gerontologist*, 23(2): 207-212.
- Kosberg, Jordan I. (1988). "Preventing Elder Abuse," *The Gerontologist*, 28(1): 43-50.
- Miethe, T.D. and R.F. Meier. (1990). "Opportunity, Choice, and Criminal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1): 243-266.

**유홍준(劉泓竣)**: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 학위(1988)를 취득했으며 현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 이사, 한국정보사회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역서와 논문으로는 「직업사회학」(2000), 「조직사회학」(1993), 「현대중국사회와문화」(공저, 2005), 「현대사회학」(공역, 2009), 「한국의 직업지위」(2007) 등이 있다(yhjcti@hanmail.net).

**정태인(鄭泰仁)**: SUNY at Stony Brook에서 사회학 Ph.D.를 취득했으며(1996)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산업사회학」(공저, 2000), 「사회문제」(공저, 2009), 「사회조사방법론」(공역, 2007), 「소비의사회학」(공역, 2001) 등을 출간하였다(chungti@hanmail.net).